통권 114 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1. 4. 11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경제침략 · 평화위협 미국반대, 민생파탄 · 개혁실종 김대중정권반대 전국민중대회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열린 "경제침략 · 평화위협 미국반대, 민생파탄 · 개혁실종 김대중정권반대 전국민중대회"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등 각계 민중 8,000여 명이참여한 가운데 힘차게 열렸습니다. 이 날 공권력의 강제진압으로 많은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Tel. 02-763-2606, 765-5282 Fax. 745-5604

민중들은 왜 분노하고 있는가

거리로 내몰린 민중생존권, 도전받고 있는 민족자주권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지난 3월 31일 종묘공원에서는 '경제침탈 · 평화위협 미국반대, 민생파탄 · 개혁실종 김대중정권반대 전국민중대회' 가 열리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조건,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등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성토했고 농민들은 개방농정 이름아래 진행될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을 파탄시키고 있는데 분노했다.

도시빈민들은 생존권 보장 요구에 용역깡패로 대처하는데 울분을 터뜨렸고 학생들은 교육비 부담을 등록금 인상 방법으로 민중들에게 떠 넘기고 있음을 규탄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의료비 인상처방을 공격했다.

민중들에게 지워지는 고통분담은 강요되는 대외종속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 자본들이 한국전력, 한국통신, 철도 등 공기업의 민영화,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해외매각을 강요함으로써 외세에 의한 경제종속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은 6.15 남북공동선언,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가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으며 엄청난 규모의 군사무기 구매를 강요하고 있으며 세계 민중들의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며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와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로 몰고 감으로써 새로운 군비경쟁과 막대한 예산낭비, 그리고 이땅에 군사적 대결을 강요하면서 새로운 냉전체제를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민중대회는 또한 개혁실종을 규탄하고 있었다.

분단과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독재와 억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살려두어 민중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 탄압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인권법, 부패방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으며 언론개혁, 정치개혁 어느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규탄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존권이 부당하게 위협받고 있을 때 방어하고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배치되는 어떠한 외세 간섭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민중대회에서의 분노의 함성은 바로 거리로 내몰린 민중생존권 때문이었고 민족자주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근에 있었던 몇가지 사례를 보기로 한다.

지난 2월 18일 대우자동차 노조원 1750명이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되었다.

노조원과 가족들은 이같은 부당행위에 농성과 시위로 맞섰다. 그러나 국가권력은 사용자 편에서 노동자 탄압에 합류했다. 김일섭 노조위원장 등 3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다음날 경찰은 부평공장에 45개 중대 5400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노조원과 가족 등 650여명을 강제해산 시키고 76명을 부평경찰서등에 분산 강제 연행하여구금했다.

그 뿐만 아니라 2월 19일 이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일체의 집회가 불허되었으며 포크레인과 헬기, 4000여 경찰병력으로 점령된 부평공장과 무법지대로 변해버린 인천지역 일대의 공안탄압 속에서 7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 · 시민이 경찰의 곤봉과 군화발에 차이면서 강제연행 되었다.

연행된 사람들은 수사과정에서 알몸수사, 강압수사, 각서종용 등 인권유린을 당했으며 공권력은 산곡성당에까지 불법침입하여 사제보와 부인,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가하는 반인권 행패를 자행하였다.

3월 29일 새벽 한국통신 계약직(비정규직) 노조원 198명이 한국통신 화곡전화국 목동분국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조원의 정규직화와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성노조원들은 고가사다리와 헬기까지 동원된 600여 경찰병력과 특공대의 진압작전으로 홍준표 전 노조위원장 등 전원이 강제 연행되었다.

이들의 투쟁은 지난 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갱신 중단을 예고하면서부터였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어렵게 노조를 설립하여 사용자와 협상에 나섰으나 사용자는 협상요구에 불성실하게 대했다.

12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통신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지 않아 계약직 노조원들은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사용자는 계약직 노동자 1만여명 가운데 7천여명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사실상 이들을 대량해고했다.

두 사례에서 보듯이 사용자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했고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바로 무한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이었고 이땅의 노동자들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이 갖춰져야 또한 초국적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해외매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세계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지적했듯이 신자유주의는 자유거래 속에 숨기고 있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이고 WTO(세계무역기구),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세계기구들이 시장 단일화를 부추기면서 약소국의 시장을 먹이로 하는 포식자들의 축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문화적 획일화와 사유의 정체, 사회분열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바로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미국의 오만은 신자유주의 강요로 끝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국으로서 힘에 의한 세계제패을 영구화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 국가들까지 반대하는 NMD와 TMD 계획을 강행하려 한다.

남북은 이미 6.15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했고 반북 대결에서 화해와 단합, 교류협력, 평화와 통일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주춧돌을 허물려 한다.

현정권의 차세대전투기 등 10조원에 이르는 무기구매 계획은 미국의 무기구매 강요와 무관치 않다. '한미 정상회담 '에서도 NMD 계획 동조를 강요했다. 남북은 6.15 공동선언 이행과 함께 동족을 겨냥했던 군사비를 대폭 감축하여 경제발전과 복지정책에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사대결 준비경쟁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윌슨 연구소 연구원 해리슨도 말했듯이 '미국은 엔엠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하려' 한다. '공화당 정권은 군산복합체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한국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실장 '피터 벡' 은 말한다. '엔엠디 구상이 미국을 위해 잘못된 것이라면 한국에도 더욱 큰 잘못이다. 미국은 한국이 엔엠디 체제 건설과 기지 제공에 기여하도록 요청받지는 않는다 해도 이로 인한 아시아의 군비확산은 한국이 귀중한 재원을 국방에 훨씬 더 지출하게 만들 것이다. 엔엠디 체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데도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긴장고조 술책은 집요하고 끈질기다. '토머스 슈위츠'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더 크고(Bigger) 더 향상 됐으며(Better) 더 가까워지고(Closer) 더 치명적 (Deadlier)이다."라고 말해 합동참모본부가 말하는 "특별히 긴장이 고조됐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평가보다 과장하고 있다.

미 태평양 사령관 '데니스 블레어' 가 "태평양에서 미국의 제1의 적대세력은 여전히 북한이다"라고 말한대서도 드러났듯이 현 부시정권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는 등 전면적 관계개선" 을 내용으로 했던 클린턴 정권의 「조·미 공동 커뮤니케」를 전면 부정하면서 동북아에서의 긴장고조와 함께 새로운 냉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미국의 이익과 우리민족의 이익이 결코 일치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익을 위해 민족의 자주권, 생존권이 위협받는 미국의 어떤 간섭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배치되는 10조원의 무기구매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 돈이라면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비롯한 실업자 고용문제, 농가부채 탕감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곽인석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개나리 노랗게 물든 나무 울타리 위로 봄눈이 뿌려진다.

길조인가!

예로부터 일기가 범상치 않으면 사람들은 모두 예언가가 되었나 보다.

3월 29일 한 낮을 지나 한강변에 위치한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 단지로 강 담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11평의 비좁은 영구임대주택이었지만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생님의 환한 얼굴을 뵈니 되려 넓어 보인다.

찾아오는 이가 별로 없었나보다. 좋은 자리를 내주려고 애쓰시는 선생님을 간신히 앉으시게 하고 절을 올리니 민망스럽게도 황망해 하신다.

며칠 전 전화를 드렸을 때만해도 낯설어 근심스레 받으시던 선생님이 의외로 무척 강인해 보이시고 당찬 목소리로 말씀을 내려주신다.

강 담 선생님은 1933년 12월 12일 함남 홍원군 산양리에서 나셨다.

지금 KEDO가 건설중인 신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동해안이다.

아들 셋, 딸 셋을 두신 부모님은 소작빈농이셨으며 여동생을 둔 다섯째로 자란 선생님은 해방이전까지는 더하기 빼기조차 배우지 못하고 오로지 농삿일만 도우셨다 한다. 형제들과 마냥 뛰어 놀던 그때가 좋으셨다지만 지독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는 소작과 목수일로 집안 생계를 이어갔지만 선생님이 9세 되던 해 이상한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아마도 힘에 부치는 고된 노동과 영양결핍으로 일찍 가족과 이별한 것이리라.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친일지주, 자본가들을 제외하면 일제 말 대다수 풀뿌리민초들의 보편적인 삶과 죽음이 아니었겠는가.

가난의 모진 고통은 편모슬하 어린 소년에게 운명처럼 주어졌다.

바로 집 앞에 학교가 있었지만 문턱에도 다가갈 엄두를 낼 수 없었다. 학교 가던 또래 아이들을 한없이 부러워만 하셨으리라.

해방은 민족의 광명과 함께 소년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도 학천 인민학교 3학년에 편입되어 학교교실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비록 졸업할 나이였음에도 어찌 꿈이 아닐런가!

졸업 후 운학 중학교에 입학하자 바로 미국과의 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북의 교육기관은 전쟁 중에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54년, 군에 입대하게 된다.

선생님은 동해안의 해군에서 7년간 복무하셨기에 지금 금강산 관광호가 머무르는 장전항과 해금강 일대는 지금도 손금보듯이 바위틈까지 기억하신다고 한다.

61년 제대 후 어업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수산사업소에 배치 받았다.

그 해 10월 박꽃과도 같은 수수함을 머금은 박원옥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4살 연하였으니 지금 65세 할머니가 되어 있을 아내는 사랑하던 모습 그대로 가슴깊이 남아있다. 그리움은 또 있다. 결혼 이듬해 태어났던 딸 선

자와 연년생 아들 길모의 재롱과, 헤어질 당시 어미의 뱃속에서 해산날만 기다리고 있던 셋째 아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를 그가 태어났을 무렵 아비는 서빙고 대공분실에서 인간의 한계와 의지를 시험하는 인간백정의 악랄한 고문의 사슬에 매여 있었으니…

전쟁 중 북의 전역에 걸쳐 상상할 수 없는 미군의 융단폭격이 감행되었다. 그 결과 평양에는 기둥 가진 건물 하나 남지 않은 폐허로 변했고 개성의 즐비했던 한옥마을은 산비탈 가까운 한 곳을 빼놓고는 평지로 바뀌었다고 한다. 심지어 묘향산 산골짜기 보현사 뒷편에 서있던 서산대사의 부도비 조차 폭격에 날아갈 정도였다니 그 잔인함과 철저한 파괴는 차라리 입을 다물게 한다.

그렇다면 인명의 살상은 얼마나 될까… 상상만으로도 심장의 박동은 얼어붙는다.

살아남은 엄청난 수의 전쟁고아들은 기아와 혹한에 죽음의 구덩이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으리라.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서 식량원조를 제의했으나 당시 김일성 수상은 식량원조대신 이 아이들의 위탁교육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북이 인공위성(한 · 미 · 일에서만 떨어지지 않는 대기권 밖의 위성을 미사일이라고 주장함)을 쏘아 올리고 외교면에서 미국과 대등하고도 당차게 겨룰 수 있는 전략은 이들 위탁교육세대에서 나왔다고 하니 그 어려운 처지에서 택한 선견적 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벼랑 끝 전술이라고 곧잘 폄하되는 북의 외교를 보면서 10세기말 고려 성종때 거란의 침입을 삼촌의 설(세치의 혀)로 막고 도리어 강동 6주를 획득한 서희장군의 담판외교 이후 실로 천년만의 일이 아닐까 한다.

선생님은 동년배들이 하나 둘씩 동구권에서 돌아와 주요 부서에 배치되어 정열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향학열에 불타올랐다고 하신다.

비록 결혼한 몸이었지만 간청하여 진남포 해양고등학교에 자원 입학하게 되었다. 2년 후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삼천톤급 외항선을 타고 사할린을 드나드는 멋진 마도로스로 변신하셨다니…

그러던 몇 개월 후 대남 통일사업에 부름을 받게 된다. 이미 군에서 입당하였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거짓없이 성실히 일에 임하는 자세를 당에서 높이 샀던 때문이다. 당신의 생애를 솔직히 적나라하게 조금의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뵈면서 당시의 정황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짐을 느끼며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65년 3월 5일, 울릉도 앞 바다는 시계가 완전히 가릴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다.

이미 소련 잠수함 동해출현첩보로 해군 방첩대가 비상수색 대기 중이었는데 당시 공작선보다 이남에서 유일하게 빨랐던 미 신형구축함인 91함이 처음에는 구름처럼 보였다고 한다. 거센 파도와 싸우며 일본 쪽으로 빠져 북으로 이동 중 좌우에 쏟아지는 함포 세례와 헬기 사격으로 급기야 8명 모두 체포되어 삼척으로 이송되었다. 곧바로 미군헬기로 여의도 비행장을 거쳐 대방동 미 합동수사본부로 옮겨서 그 때부터 광기 어린 고문은 시작되었다.

6, 7개월 계속되는 수사도중 옮겨졌던 서빙고 대공분실에서의 나날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고문의 연속이었다. 검은 연탄가루가 뿌려져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알몸으로 뒹굴면서 겪어내야 했던 고문들… 고문기술자들은 더 이상 인간이기를 거부한 또 다른 종족들이었던 것이다. 끝까지 기개를 굽히지 않자 대방동 미 수사관들이 감탄하여 내뱉는 말이,

"공산당이 대단하다. 김일성이 정말 대단하다. 사람을 이렇게 잘 고르다니!"

생사를 넘나드는 고투 끝에 선장과 부선장은 결국 사형집행을 당하였다. 일제 때 독립투사들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했던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역사와 비극은 언제까지 되풀이 될 것이가.

기관장, 부기관장과 항해사로 당책(당조장)이었던 선생님은 1심사형, 상고심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되셨다.

기관장 탁해섭동지는 감옥에서의 계속된 고문으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교도속측은 자살로 처리하였다. 지난 2월 6일 강요된 침묵 끝에 전향무효선언을 하신 후 선생님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탁해섭동지의 사인은 결코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 재조사를 제기하시

고 있다. 부기관장겸 무전사였던 최수일 동지는 99년 2월 25일 출소 후 작년 9월 62명의 동지들과 함께 먼저 북으로 송환되었다.

68년, 지금은 대동강변에 기념물로 전시되어 있는 푸에블로호 사건과 이어진 김신조 사건으로 교도소측은 예민해져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있던 좌익수들을 전국 교도소로 분산시켰다고 한다. 선생님도 이때 광주교도소로 이감되어 독방생활을 시작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의 지시를 받은 교도소 고문담당관이 "전향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떠들며 고문을 거듭할 때 '옛 왕조시대에도 한 임금을 섬겼는데' 하시며 끝까지 버티셨다. 그러다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71년, 옆방동지와 모스부호를 타진하며 통방하던 중 간수에게 걸리어 별도의 고문이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선생님의 혈압은 낮을 때도 180 ~ 190이고 높을 때는 수치를 알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곧 죽음이 임박해 옴을 가물거리는 정신 속에서도 직감할 수 있었다. 여기서 선생님은 죽음과 삶의 가치판단을 하시게 되었다. '죽는 것도 영광이겠으나, 내 나이 아직 40대이니 살아서 할 일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 고 결심, 죽음의 문턱에서 피눈물로 전향서에 날인하셨다.

88년 11월 20일 24년만에 임경순 전남대교수의 신원보증으로 출소하여, 임교수의 조카가 운영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한 가구공장에서 생소한 남쪽사회에서의 첫 발을 떼게 됐다. 임교수와 조카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산 속 가구공장에서의 생활은 또 다시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화도 걸지 못하고 텔레비젼조차 볼 줄 몰랐으니.

그리하여 양해를 구한 후 감옥에서 알게 된 동년배의 어느 병원의사에게 부탁하여 89년 봄, 한 건설회사에 잡부로 취직하였다. 성실성과 진솔함을 인정받아 작업반장으로 모든 작업을 통솔하게 되었지만, 97년 7월 몸바쳐 일했던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적금으로 모은 얼마의 돈까지 사장에게 빌려주었던 터라 퇴직금과 밀린 임금까지 받지 못하고 다시 빈손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공공근로 취로사업과 아파트 경비를 전전하던 중 작년 3월 24일 우유배달 부인의 소개로 한 천주교성당에서 낮에는 청소부로 밤에는 경비로 지금껏 일하고 계신다. 삶의 마디마디 참혹하고 기막힌 고투를 새겨가며 남에게 의지함 없이 홀로 꿋꿋이 살아오셨던 얼굴을 바라보니 숙연함과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친다. 지금의 11평 짜리 영구임대주택이나마 얻기까지 살을 에는 추위와 한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모래통을 지고 휘둘대는 발걸음으로 빌딩공사장을 오르내리며 탈진했던 날들을 누가 보았단 말인가.

선생님은 최근 한가지 꿈을 조심스레 키우고 계시단다. 그것은 자서전 형식으로 지난날을 엮어보는 것이다. 선생님의 삶 자체가 지난했던 우리민족의 역사가 아닌가.

성당 숙직실에서 침식을 하시기에 집에는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에만 오신다고 한다. 동지들과 얼굴도 보고 집회에도 참여하며 대화도 나누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안타까움을 토로하신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며 주말에 쉴 수도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도 있었지만 알선해 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 70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변함없이 견뎌 내시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강인하게 살아오신 선생님에게도 다 닦을 수 없는 눈물이 남아 있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눈가의 붉어짐을 숨기려 하신다. 갑자기 담배를 하느냐고 하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피우신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세 번 죄를 지었어.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했단 말이야. 전향소식을 듣고 그 애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작년에 동지들이 북으로 돌아갔을 때 아비를 기다리던 애들이 얼마나 허탈감에 빠졌을까… 옆집에 살았던 장병락동지가 둘도 없는 내 친구란

말이야… 아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만약, 누군가가 선생님께 아버지로서 책임운운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살점을 떼어주는 부모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인가? 당신은 분단된 조국의 희생자인가, 수혜자인가? 라고… 방안 가득 흐르는 소리 없는 울음들…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었다.

되려 선생님의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기에…

모처럼 쉬는 날에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해 드렸다는 죄송함에 마지막으로 남쪽사회에서 느낀 점을 여쭈어 보았다.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북의 청소년에들에 비한다면 남쪽에는 인성교육이 근본적으로 안되어 있다고 하신다. 출소이후 가난뱅이, 막노동꾼, 빨갱이로 매도당하셨던 일들이야 새삼 무엇을 말씀하시겠는가?

정치지도자들이 사대주의에 빠져 할 말을 못하고 있는 모습도 처량하고 가엾다고 하셨다. 얼마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당한 굴욕을 보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언제까지 미 · 일에 눌려 살아야 하는지 미국정치배 들에게 격분을 금치 못하신다.

자책과 회한의 모습이 가차없는 서릿발로 옮겨감을 보면서 한때의 꺽임이 있었을지언정 혁명의 길을 잃지 않으려는 투사의 웅혼함이 그대로 다가옴을 느낀다.

"언제 한번 권(오헌)선생님과 같이 만나서 저녁이라도 하지. 내 꼭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네."

"선생님, 반드시 선자, 길모 그리고 이름 모를 막내를 반드시 안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때까지 강녕 하십시오."

태고 적부터 면면히 흘러 내려오는 조선사람의 피를 가진 참된 조선인의 모습!

그 선생님을 작별하고 나서는데 어느 놀이터 한쪽에선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하늘 가득 퍼져 오르고 있다.

시린 가슴을 감싸안으며 나도 모르게 멈추어 선 발걸음을 마치 도둑처럼 옮겨 빠져 나왔다.

총회 소식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3차 정기총회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 해온 일들을 점검 · 평가하고,
앞으로 1년의 사업계획 등을 결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회원 여러분께서 헌신적 노력으로
63명 비전향 장기수선생님의 빈 자리를 확인하며
서운했지만 뜻깊은 일을 해낸 자긍심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그리운 얼굴을
뜨겁게 다시 만나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투쟁의 결의를 모아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후원회원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총회장에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부 정기총회에 이어
2부 식사를 곁들인
푸짐한 뒤풀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날짜 : 2001년 4월 21일(토) 오후 3시 30분
장소 : 흥사단 중강당(대학로)

'조선의 여인은 강하다고 한다'

안윤정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지난 달, 소위 민혁당 사건 양심수 하영옥씨의 부인을 취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 번의 전화 끝에 어렵사리 통화가 됐다. 그리고 토요일 낮12시에 사당에서만나기로 했다.

토요일 11시, 전화가 왔다. "죄송한데요, 우리 큰 애가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12시에 뵙긴 어려울 거 같네요. 그리구 오후엔 학원에서 일해야 해서요, 어쩌죠?"

(사진 오른쪽) 남편의 석방운동에 나선 김소중 님.

"그러면 일 끝나시는 시간이 언제죠?"

"밤 10시 이후에요"

"좀 늦긴 하지만 혹시 그 때는 뵐 수 있을까요?"

"저야 괜찮은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죄송해서요…"

"저는 괜찮아요. 그럼 이따 밤 10시에 제가 그 쪽으로 가지요…"

밤 10시, 이른 시각은 아니었다.

양심수 하영옥씨의 부인 김소중씨가 일하고 있는 곳은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한 학원이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아직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소중씨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전에 뵌 적이 있지요…, 지난 여름 선생님들 북에 가시기 전에 민가협 수련회에서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뵌 기억이 있긴 있네요...전엔 남편 후배들까지도 한 번 보면 잘 기억을 했었는데 남편이 거기 들어간 후론 사람 만나도 기억이 가물거릴 때가 많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는 질문에 소중씨는, "늘 똑같아요. 남편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전 이렇게 학원강사 생활을 했구, 애 아빠는 공부하느라 자주 만날 시간도 없었지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98년에 사시 1차에 합격하기도 했었죠. 99년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중 구속이 되었던 거예요. 생각하면 참 아쉽군요. 오래 고생하며 공부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서요…"

양심수 하영옥씨는 1963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뜨거웠던 80년대를 대학교정에서 보냈던 하영옥씨는 서울대 법대시절부터 학생운동을 했다. 당시 뜨거운 피를 가진 젊은이 치고 운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는가. 하영옥씨도 그렇게 학생운동을 하다가 86년 구학련사건 관련으로 구속되어 87년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그 해 8월의 사면복권조치는 6월항쟁의 성과였다. 그 후 89년 선배들과 공동으로 속셈학원을 차리게 되었고 그 와중에 부인인 김소중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90년 선배 정대하씨가 구속되어 하영옥씨도 수배상태가 되자 소중씨는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랑이 싹터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중씨의 친정에선 결혼당시에 직장도 없는 하영옥씨와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으나 사시준비를 한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해 주었다고 한다.

결혼 후 하영옥씨는 계속 사시를 준비한다고 공부만 했으며 생계는 전적으로 부인이 책임져야했다. 10여년의 결혼생활동안 소중씨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가정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했다. "경제적인 문제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따로 있었어요. 시시때때로 미행이나 도청이 있어 늘 불안했지요... 뭣 때문에 그런건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별로 마음 편히 살아보지 못한 거 같아요. 이제와서 생각하니 아내인 저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남편이 혼자서 참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순전히 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남편인데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힘든 세월을 혼자 감내하며 살아왔을 남편의 마음고생을 먼저 생각하는 소중씨가 문득 천사처럼 보였다.

"전에 87년에 공정선거감시단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운동의 취지나 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 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할 마음은 없어요. 또 그럴 가정적 여건도 않되구요.어쨌든 애들 키우며 살아가려면 누구 한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전 남편을 믿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도 알구요. 그리고 지금도 남편은 나오면 계속 운동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운동은 못해도 남편을 잘 뒷받침해 주려는 생각이예요."

사랑과 믿음의 힘은 정말 위대해 보였다. 결혼 후 지금까지 편안한 세월을 살아보지 못하고, 남들처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해보지도 못하고, 늘 경제적으로 쪼달리며 불안한 세월을 살았어도 소중씨에게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영옥씨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자신이 통일의 정당함을 믿고 그것을 위해 일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진술거부를 했고 재판거부도 했습니다. 자신은 재판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옥씨는 사건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통일운동이었지 간첩활동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분단된 조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통일을 위해 일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마지막 확정판결로 징역8년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있습니다. 저는 1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면회를 갑니다. 비록 철창을 사이에 두고 손 한번 잡아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늘 웃는 얼굴로 만나고 있습니다. 영옥씨는 자신이 제일 늦게 나갈 거니까 빨리 나올 거는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도 영옥씨가 빨리 나올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준법서약서 같은 것은 절대 쓸 생각이 없고 저도 영옥씨가 그거 쓰고 빨리 나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길어야 8년인데요, 뭐. 금방 지나가겠지요!' 말을 맺으며 애써 밝게 웃는 소중씨의 모습엔 감출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있었다.

"전엔 가정과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남편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는 못해도 남편이 하는 일을 뒷받침해 드릴 생각입니다. 애들에게도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늘 얘기해 주고 있고 애들도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남편을 간첩이라고 하니 남에게 피해가 갈까봐 함부로 도움도 못 청하겠구,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땐 정말 외로웠어요. 그러다 민가협이나 여러 인권단체 분들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지요. 특히 지금은 북에 가신 장기수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많은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들 가신 후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선생님들 사시는 곳을 지나갈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10년 전만 해도 "간첩"의 집엔 친척들도 발길을 끊고 엊그제까지도 이웃사촌으로 지내던 옆집 사람에게마저도 외면당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간첩"의 가족은 외롭다.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레드컴플렉스 때문이다. 분명히 만들어진, 조작된 사건의 간첩이어도 그렇다. 우선 간첩사건은 대개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경우 그런 사건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가족들은 자식이나 남편의 활동의 내용을 모르며 그 정당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단지"간첩"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붙여진 것에 잔뜩 주눅이 들어 숨죽여 지내기가 일쑤이다. 그 시간은 가족들에겐 너무나 외롭고 힘든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자식이나 남편이 간첩이 아니라 확대해석되고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이며, 그의 활동은 지극히 정당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 소중씨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 자신이 아내이지만 남편이 뭘했는지 알지 못하기에 답답했다. 그래서 사건 초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했고 처음엔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누구에게도 상의하거나 부탁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니 이런 경우에 대해 너무 몰라서 초동대처에 미흡했던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처음엔 사람들이 남편이 무기형를 받을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8년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조금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8년이 길지만 그리 긴 시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다보면 지나가겠지요...하지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서로가 같이 있는 것이 어색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소중씨는 강해 보였다. 남편을 뒷받침하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중씨는 가족이 모여 오손도손 살아가길 바라는 이 땅의 많은 아내들 같은 소박한 바램을 가진 평범하고 여린 여인이기도 했다.

조선의 여인은 강하다고 한다. 조선의 여인이 왜 강한 여인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지난 우리의 역사의 비극들이 우리 여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분단된 우리의 상황은, 그리고 그 상황에서 파생되는 많은 부조리한 현실들은 소중씨 같은 여리고 소박한 이 땅의 아내들,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강함을 요구한다. 그 어머니들, 아내들에게 슬픔이나 아픔은 뒤로 한 채 강해야 한다고 한다. 대단한 것도 아닌, 그저 가족 모두 건강하게 오손도손 살고 싶은 그 소박한 바램마저도 접어야 한다고 강요한다.

엊그제는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듯 때아닌 눈이 내렸다. 그러나 누가 계절의 흐름을, 자연의 이치를 막을 수 있겠는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자연의 섭리를…

이제 이 땅에도 고통의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땅의 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며 봄을 맞으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다.

오늘따라 옷깃을 파고드는 봄 바람조차 따스하게 느껴진다.

어둠을 밝히는 한줄기 촛불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을 뿐…

이승미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사람이 사회의식, 역사의식을 갖고 운동적 삶의 주체로 나서게되는 데 있어서 그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주로 자신의 일터나 학교에서 그 첫발자욱을 내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 약간은 특이한 계기를 통해 운동적 삶을 접하게 된 회원이 있으니, 바로 송지영회원님이다.

한지흔선생님과 함께 한 송지영님.

갈현동 만남의 집에서

내가 송지영님을 처음 만난 곳은 작년 북으로 송환되신 장기수선생님들 중 다섯 분이 기거하셨던 〈갈현동 만남의집〉에서이다. 그곳에 선생님들 뵈러 갈 때마다 난 이 분을 종종 뵐 수 있었다.

그곳을 찾아 뵙게 되면 사람들은 대개 선생님들 곁에 둘러앉아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며 선생님들의 말씀도 듣고 그 앞에서 재롱(?)도 떨곤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송지영님은 대체로 부엌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한쪽 구석에 앉아 오가는 대화들을 조용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혹자는 송지영님을 처음엔 선생님들 살림 도와드리러 오는 아주머니로 알았었다고 할 정도이다.

그랬다.

이렇게 송지영님은 선생님들 북으로 가시기 전부터 지금껏 묵묵히 그 분들께 정거장(?)과 같은 역할을 훌륭히 해내며 살고 있다.

정태춘씨의 음악을 접하고

고향인 경남 양산에서 7년째 살고 있는 송지영님은, 대학 동기동창인 남편분과 결혼하여 지금 2남1녀의 맑고 사랑스런 아이들과 아이들 할머니 등 여섯 분의 가족이 함께 사는, 올해로 마흔이 되신 회원님이다.

"어릴 때부터 몸이 무척 약해 온갖 병치레를 다 하며 자랐고 고교졸업 때까지 한치 앞도 약속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었어."

그런 송지영님을 너무도 애닯아 하셨던 어머니는 어떡하든 그 막내딸을 살려보시려고 모 종교에 귀의하셨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 본인도 근 30년 가까이 그 종교단체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다고 한다.

"만일 건강이 보통정도라도 됐더라면, 또는 종교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사회모순에 대해 더 빨리 눈을 떴을지도 몰라. 지금 와서 가끔 생각하지만, 내 피 속에는 반역(?)을 꿈꾸는 요소가 있는 듯 하니까 말야…."

그도 그럴 것이, 송지영님은 남편 분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쉬울 것 없이 살던 중 어느날 우연히 손에 들어온 한 장의 CD로 인해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달라져 버렸단다. 바로 정태춘씨의 음악이다. 정태춘씨의 음악세계에 담겨져 있는 그 사회성과 역사성이 송지영님의 가슴에 그야말로 도전적으로 와 박

혀버린 것일게다.

"그 사람의 음반은 다 사들였어. 완전히 마스터했지. 처음엔 도무지 '이해 못할 남자' 라는 결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론 그 분을 통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많이 사랑하고 있어."

발 밑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그렇게 막연하나마 사회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던 중, 1998년 겨울 송지영님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된다.

"내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노숙을 하는 여인을 본 뒤로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았었어. 지금도 당시 등에 업혀 있던 열이 심한 갓난아이가 그날 저녁 갑자기 몰아친 강추위에 죽지는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을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지.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었어. 나도 별로 부자는 아니면서 말야.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발 밑이 무너지는 느낌, 겪어본 적 있어?"

그날 집에 돌아와 두 시간 이상을 우셨다 한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지치고 초라한 중년여인의 낯선 얼굴이 보이더란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런 거였나? 나는 결코 이런 삶을 원하지는 않았다고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고민했었지."

그 후 송지영님은 정태춘씨 덕분으로 부산의 한 시민단체에서 소모임 등의 활동을 하게 되었고, 뒤이어 장기수선생님들과의 인연도 맺게 된다.

스승님의 혹독한 가르침

"99년 4월말에 처음으로 갈현동에 갔었어. 반찬을 한 아홉 가지 해서 주렁주렁 싸 짊어지고 말야."

그후 1년 4개월 동안 갈현동 만남의 집에 한달에 한두번 정도씩 갔고, 가면 3~8일간씩 머무르면서 선생님의 살림살이도 돌봐드리고 그곳의 선생님들께 많은 가르침을 받으셨다 한다.

"내게는 스승이 두 분이시다. 한 분은 나의 눈을 틔워주신 분이고, 또 한 분은 나의 정신을 길러주신 분이시지."

우용각선생님과는 사제간의 인연을 맺어 가르침을 받으셨다 하는데 그것의 혹독함이란….

"사제간이었기에 엄한 가르침을 받았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고, 무엇이든 바로 대답을 올려야 했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했지. 선생님을 모시고 있을 때는 하루에 한두시간 자면 많이 잔 거였어. 혹독하게 살았지."

고진감래라고나 할까. 덕분에 송지영님은 그 속에서 깊은 깨달음과 올곧은 사고력, 실천력을 다질 수 있게 된 것 같다.

"사제간이란 한 그릇의 물이 색과 향, 맛, 질량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다른 그릇에 부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란다. … 무슨 일이든지 선생님을 중심에 올려두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선생님은 또한 송지영님이 30년간을 헤어나지 못했던 그 종교단체의 틀에서도 과감히 벗어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주셨다고 한다.

장기수선생님들의 '정거장'

송지영님 옆엔 늘 든든한 빽이자 동반자인 분이 계신다. 다시 태어나서도 결혼하자고 할 정도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 남편이신 안태일님이다.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안태일님은 송지영님에 버금갈 정도로 기회 닿을 때마다 선생님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왔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레 선생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시는 분이다. 아마도 많은 이들처럼 그분도 선생님들의 말씀과 풍모, 인격에 진한 감화를 받아오신 것일 듯 싶다.

송지영님의 집이 장기수선생님들의 별장이자 정거장이라는 건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로 되었다. 그쪽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 주변을 지나가게 되시면 어김없이 송지영님 집에 들르신다는 것이다. 아예

방 하나를 비워두고 있다 한다. 송환되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리고 아직 남아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곳을 들르시는 선생님들은 송지영님 부부의 극진함과 세 아이들의 재롱에 편히 쉬다 가시곤 한단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포복절도할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다. 그 이야기들이 듣고 싶은 분들은 언제 남쪽 지방에 가게될 때 양산에 있는 그 '정거장' 에 들러 함께 담소를 나누어도 좋을 듯 싶다. 최소한 현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에 한해서는(?) 대접받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

배움의 자세로…

송지영님에게서 또 한가지 감탄할만한 일은, 세 아이들을 키우고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시며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이 송지영님으로 하여금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도록 만들어준 일면이 아닐까 싶다.

심지어는 다시 공부하고 싶어서 전공을 바꿔 대학의 국문학과를 또 다니기까지 했는데, 〈조선문학〉에 관한 졸업논문을 써서 작년 11월에 통과되셨었다고 한다.

"스승은 큰 바다처럼 가이 없으신데, 가르침을 받는 제자는 작은, 그나마 깨어진 컵과 같은 경애를 가졌기에 내면화되지 않은 가르침을 속수무책의 죄책감으로 흘려 보내야만 했으니…. 나의 소망이 있다면 한 방울의 물과 같고, 한줌의 황토, 약간의 소금, 기나긴 어둠을 밝히는 한줄기 가녀린 촛불과도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 뿐이야"

요즘은 갈현동 만남의 집을 주로 찾아 뵙고 후원 일도 했었던 몇몇 회원 분들과 함께 작년 장기수선생님들 송환 이후에 만든 '소모임' 활동을 잘 해보고자 여념이 없으시다.

맑은 눈을 가지고 무슨 일에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시는 송지영회원님과 안태일님, 그리고 그분들 가족 모두에게 항상 건강함과 평안함이 주어지길 진실로 기원드린다.

마지막으로 세 아이들의 우용각선생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 담긴 귀여운 편지글들을 소개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 번째 편지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우용각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 집에 빨리 오셔요.
할아버지랑 같이 놀고 동네구경도 하고 앵봉산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왕뽀뽀도 해드리고요.
할아버지가 오셔야 초롱이도 집에 올 수 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오래 오래 사셔요.
-- 할아버지 손자 안정호 올림.

두 번째 편지

할아버지, 지금도 바쁘시겠죠?
저도 할아버지가 가시는 모습을 못 보아서 슬퍼요.
초롱이도 유치원에 줘 버려서 슬프고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주택으로 이사 가서 초롱이를 데려온다고 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할머니랑 행복하세요.
-- 안정환 올림.

세 번째 편지

할아버지 댁은 어디에요?
조선에는 재미있는게 있어요? 우리도 알고 싶은데…
그런데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뉴스에도 나오는데도 왜 할아버지를 몰라요?
우리요, 조금 있으면 소풍가요. 좋겠죠?
할아버지 지금은 주택에 사시나요? 아파트에 사나요?
설마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가 되신 거는 아니죠?
그런데요, 조선사람들은 도시락을 보고 곽밥이라고 한다는데, 맞아요?
안녕히 계셔요.
-- 안지언 올림.

3월 북한산을 다녀와서

남 보 현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봄인데도 봄같지 않은 쌀쌀한 기온과 황사 바람으로 몸도 마음도 움추려 있던 중 산행 소식을 들으니 머리부터 맑아졌다. 양심수 후원회에 들어 온 지 한 달째이며 이번이 처음 같이하는 산행이다. 작년 4월에 산에 오른 후 1년만에 오르는 것이고 그동안 너무 건강 관리에 소홀했기에 체력 단련을 위해서도 산행이 즐거웠다. 몸이 건강해야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기에 건강을 돌보는 것 또한 애국인데…

일행은 연신내역에서 오전 10시를 전후로 모여 출발하였다. 장기수 선생님으로서는 권주환 선생님만 참석하시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통일광장 일로 참석하지 못하셨다. 회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심주이 양과 노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올라갔다. 주이는 신입회원으로 사무직 노조 일을 한다. 양심수 후원회에 들어와서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며 폭이 넓어진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북한산이 북한에 있는 줄 알았다는 말들을 나누며 정말 북한에 있는 산도 오르고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르기에 험한 곳은 안 오른다고 들어서 안심을 했는데, 이번이 우리 산행 중 제일 험하다고 하니… (어휴~).

특히 나와 승미언니로서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머리가 나뭇가지와 바위에 부딪치기도 하는 공포의(?) 산행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다 올라 주변의 장관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힘들었던 만큼 보람을 느꼈다. 사방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잠시 자연인이 된 기분!

드디어 즐거운 점심 시간. 도시락 집에서 사온 밥과 반찬을 맛있게 먹으며 산에서는 김밥보다 그냥 밥이 낫다고들 하고. 막걸리와 같이 먹는 족발이 평소같지 않게 왜이리 맛있던지. 점심식사를 마치자 마자, 각자 소개를 하였다. 아이들과 온 창학이 형부부, 5월에 결혼을 하게되는 득행 형과 계숙씨,… 다들 안 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인데 아주 편한 느낌이 간다. 나는 34세이고 학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작년까지 청년회 문학반이었다고 소개를 하였다. 권오헌 선생님께서는 양심수 후원회의 소명 의식에 대해 말씀 해 주셨으며, 권주환 선생님께서는 유격대활동시대 산이야기를 해 주셨다.

북과 남의 합의 방해하는
한심한 미국놈들아
산산이 부서져라!!!

내려오며 '북한산' 으로 3행시를 짓자고 했더니 서슴없이 나온 의숙언니의 '북한산' 3행시에 다들 감탄하였다.

북한산 자락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의 자취가 잠깐 묻은 산을 바라보며 다들 "우리가 저렇게 험한 곳을 올라갔나!' 하였다.

뒷풀이를 하면서, 권오헌 선생님께서 양심수 후원회의 정체성과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 양심수 후원회원이 1000 여명이나 되니 적극 활동하는 회원이 40명만 되어도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신다. 오늘 산에 간 회원은 10 여명인데 적극 활동하는 회원 중 무슨 일이 있어 빠진 회원도 많다. '95년도 산행엔 80명씩이나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되어도 다음 산행엔 회원들의 건강과 단합을 위하여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우리들 핏줄 속으로 흐르는 그 뜨거운 사랑처럼

-안동교도소 경환 형에게

유병문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늘 생각하고 살진 못해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형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은 늘 구차한 변명 같아서
쉽사리 입이 때지지 않을 때가 많네요

바깥에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아우는
벌써 제 일에 바빠
소식 한 자락 전하는데도 무심했습니다

경환 형!
아직도 그 따스함은 여전하겠지요
푸근하고 여유로운 웃음 말이에요
봄날 같은 형의 웃음이 있어
삭막한 교도소 창가에도 비둘기가 알을 낳았을 거예요

혁명이란
비둘기가 알을 품듯
우리들 삶으로 이 세상을 품어내는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심장의 온기를 전해
새 세상이 깨어나게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들 핏줄 속에서
뜨거운 피가 흐르는 동안은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사랑,
내일을 위한 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길
형, 오늘도 가고 있네요

흐르는 강물이 둑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딪히며 내일을 준비하듯
형의 꿈, 형의 사랑도
그 강물처럼 흘러
내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흘러 함께 굽이칠 날이 오겠지요

우리들 핏줄 속으로 흐르는 그 뜨거운 사랑처럼

연행, 연행, 또 연행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흘에 한 명씩 연행

새해 벽두부터 놀랍게도
평균 사흘에 한 명씩
국가보안법위반 협의 연행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결의 상징인
6.15공동선언이후에도
반인권 · 반민주 ·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서슬퍼렇게 살아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심지어는 약물수사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양심수가 없는 나라' 로 성큼 달려갑시다.
그 길의 앞장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섭시다.

※ 이 글은 300일이 넘게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자 농성단이
조사 · 정리한 것입니다.

1월 1일 2000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이승복 연행
1월 15일 1999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김호중 연행
1월 20일 2000년 명지대 총학생회장 이주호 연행
1월 25일 2000년 전남대 사회대 학생회장 양윤섭 연행
1월 31일 2000년 인천대 공대 학생회장 조승현 연행
2월 2일 1999년 경북대 총여학생회장 김현정 연행
2월 4일 2000년 한림대 부총학생회장 김도형 연행
2월 5일 2000년 한총련 대의원 김정학 연행
2월 7일 세종대 김성민 연행
2월 7일 경북대 문상열 구속(7기 한총련 불탈퇴)
2월 8일 2000년 부총학생회장 구동진 연행
2월 8일 2001년 부경총련 임시의장
동아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창모 연행
2월 13일 2000년 부산대 사범대 학생회장 심미순 연행
2월 14일 2000년 경북대 사회대 학생회장 이한우 연행
2월 16일 2001년 성신여대 부총학생회장 최희영 연행
2월 22일 2000년 목포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임선영 연행
2월 23일 2000년 국민대 문과대 학생회장 이석철 연행
2월 24일 1999년 충청총련 의장 고대 서창 총학생회장 이루 연행
2월 24일 고려대 신호욱 구속(8기 한총련 불탈퇴)
2월 24일 인천대 박병규 구속(8기 한총련 불탈퇴)
2월 26일 경남대 심재향 구속(8기 한총련 불탈퇴)
2월 28일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자주연합)의
뉴욕지부회장,민족통일학교 송학삼교장 연행
2월 28일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한양대지부 임시대표
한양대 상경대 회장 두혜전 연행
2월 28일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국민대 김영재 연행
2월 28일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고려대 김성훈 연행
2월 28일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외대지부대표 김재헌 연행
3월 1일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경희대지부 대표 김광일 연행
3월 6일 소위 민혁당 혐의로 임태열씨 연행
3월 8일 2000년 마산 · 창원지구 총학생회 연합 의장,
경남대학교 총학생회장 강성범 연행
3월 12일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한양대 소병선 연행
3월 17일 2000년 경북대 사범대학생회장 권미연 연행
3월 17일 연세대 이인웅 구속(7기 한총련 불탈퇴)
3월 24일 광운대학교 박현선 구속(6기 한총련 불탈퇴)

국가보안법 관련 연행자 총화(2001년 3월 31일 현재, 총 33명)

소위 민혁당 관련 임태열씨 약물수사에 관한 면회일지

남편이 구치소로 이감된지 이틀째인 오늘(16일)까지 본인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다. 그동안 줄곧 사식과 간식을 차입하면서 쥐포는 지하 매점에서 본적이 없었거니와 간식차입중에 인쇄된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편은 평소에 밥을 먹고나서 오징어 한 마리를 구워 디저트로 금새 먹어치울 만큼 오징어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수개월간의 안방도청이 가능했다면 충분히 남편의 식성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그동안 안방도청이 가능했다면 그건 정말 세식구에겐 끔찍한 일이었고 남편이 연행되기 3일전쯤 하영옥선배의 약물수사 이야기를 꺼낸적이 있었고 나는 농담처럼 남편에게 당신은 약물에 약해 큰일이다라고 말했었다.(남편은 평소 심한 두통이나 감기에도 약을 절대로 복용하지 않는 사람임) 이상하게도 남편이 그때 당시 특이한 두통(오른쪽 머리 밑에서 목 사이-이것은 하영옥씨의 증상과 동일)을 2-3일간 호소했고 그때의 표현을 머리에 쥐가난다라고 했으며 자신의 목소리도 스스로가 이상히 들린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작년 가을경 시간이 짧지만 잠시 그런 증세를 이야기했었고 그런 증세가 시간과 간격이 좁아지는 것 같아서 부인으로서 걱정했던 적이 있다. 나중에 병원에 가면 정신과 진찰이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특이한 증세가 복합적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이다. 가끔 입술경련이나 손떨림등도있었는데 남편과 나는 수배생활의 긴장가보다는 평온하게 세식구가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더 컸었고 크게 신체적으로 무리한 일도 없었는데....가끔 자고 일어나 둘다 마치 전날 술에 만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느낌으로 하루종일 멍하니 있던적도 가끔 있었다. 서로 이상하게 여기면서. 외출보다는 하루종일을 먹고, 자고, 중간에 할인점 쇼핑도하면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고 기간 몇 개월은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던때였으며 너무나 행복한 가정의 행복이 깨질까봐하는 마음으로 지냈던 때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둘다 몸은 이상하게도(입술경련, 특이한 두통과 증세)에 나는 손떨림이나 눈이 심하게 출혈되는 증세 등등을 가지고 있었기에 체력을 다져야겠다고 이야기하며 중고로 러닝머신까지 구입하여 운동이나 식사등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까지 했었는데 몸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증세를 보였다.

부인으로서 이번 사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다.

1. 이미 현재의 집(인천 5개월 거주)이외에 부천에서의 몇 개월간의 생활이 그들에게 파악된 것 같은데 연행을 일정기간이상 미루어 온점도 그렇고 (구속영장에 이미 거처 파악이 되있었음이 나와 있음), 그러면서도 정리차원의 수사라고 그들이 강조하며 안정시키려고 하는 점.
2. 남편에게 수사관들이 오전 11시가 되면 식사할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부인에게 전화하게 해 11:30에 면회하고 식사하게 해준 점(집에서의 보통 아침식사시간과 일치)
3. 지난 1,2차 연행자와 달리 남편은 핸드폰으로 옥인동 대공분실과 종로서 유치장을 오가는 중 꼭 연락을 직접 해주었다.
3. 불법이나 폭력적 형태의 연행이 아니었고 한번의 욕설이나 반말도 없는 선생님, 사모님해가면서 그들이 보여준 지나친 배려와 여유가 이상하기까지 했다.
4. 간식차입증을 바꾼 매점 여직원은 이미 부천에서 우리집을 몇차례 오간적이 있다. 여호와의증인이라면 단발머리에 커다란 눈, 목소리까지 남편과 내가 뚜렷이 기억을 한다. 그런에 우연히 온 종로경찰서의 매점 점원이 자신의 종교적 활동을 위해 부천 우리집까지 다녀갔다는 것인가. 이는 특별면회때(13일)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그 인상을 또렷하게 기억했었다.

나는 남편에게 약물을 사용한 것을 확신한다. 하루 세차례의 면회를 하면서도 나는 내남편이 평소와 다르다는 느

낌을 자주 받았었다. 더구나 불과 하루전의 일도 희미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하고 자세하고 확실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점이 그랬고, 남편의 모습은 초췌하고 경련이 있었으며,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었다. 결코 내 남편이 아니라는 느낌! 무조건 아무것도 먹지말라고 남편에게 소리치는 아내의 심정을 누가 알 것인가. 간식 차입증이 뒤바뀌고 쥐포가 반입된 사실을 알고나서야 월요일 아침 06:30 사식부터 막아야겠다는 절박감이 생겼다. 나 또한 처음부터 약물수사를 차단하고자 면회일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주말(10,11일)이 되자 내가 왜 면회일지를 쓰는지조차 스스로가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긴장이 풀리고 즐거운 상태였다. 흥분상태가 되고 주위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잘 안되고...

월요일 저녁 민가협 어머님들이 벌인 모자상봉투쟁속에서 우리남편과의 특별면회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면 나도 스스로의 증세를 그냥 넘어갈 뻔했다. 그냥 긴장, 스트레스등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또렷하게 하루정도 단식을 한 남편이 특별면회 때 보인 모습은 잠시나마 나의 남편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눈빛이 그러했으며 나에게 전하는 세가지 이야기. "너 거기(옥인동 대공분실)에서 뭐 먹었느냐"고 다그치는 말에 비로소 이제야 나도 면회시 그곳에서 드링크류를 수시로 먹었으며-이상하게도 우리 아이에게만은 기필코 우유만을 먹이라고 권유했었다-그이후 쭉 지나친 흥분이 자제가 안되는 것을 자각했다. 남편은 자신의 싸움을 국가보안법 철폐싸움으로 밖에서 보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렷한 목소리로 앞으로의 자신의 싸움은 국가보안법재판 자체를, 아예 국가보안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싸움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나는 이제야 평소 늘 입버릇처럼 꿈속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싸움을 벌이다 깨어나곤 하던 남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면회가 끝난 후 기자 인터뷰속에 그속에서 있었던 일 (오징어, 쥐포, 불가리스가 차입되고 6-8인이 나누어먹고 1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배앓이와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본인과 비슷한 증세)을 알 수 있었다. 간간이 면회시 전달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듣기는 처음이었고, 그날 밤 나는 남편이 머리에 쥐가 난다고 이야기하던 증세가 나타났다. 정말로 약물수사의혹을 가져왔던 특이한 느낌과 증세(두통과 손떨림, 횡설수설하게 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함)를 나타내면서 나역시 그간 면회시 나에게보여준 남편의 모습이 이해가 되었다. 나역시 며칠간 그런상태를 가지는 과정에 주변의 후배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약물수사의혹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반드시 그들의 만행을 단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연행당시부터의 면회일지는 남편 임태열씨를 그동안 쭉 보아왔던 부인으로서의 주관적 느낌과 생각임을 밝히며 남편의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고 자부해온 나로서의 입장과 객관적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면들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그간의 스트레스와 감정의 긴장이 있었음도 사실이며 그상체위에서라도 납득이 안가는 점이 있어 공개하기로 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는 약물수사의혹을 밝혀내는 문제는 지금 당장 물증을 잡거나 증거자료로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현실적으로 머리카락, 혈액, 소변등에서 약물을 검출하고 입증할 수 있는 국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점) 최선을 다해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내기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약물수사의혹에 관해 많은 분들이 연행과 구속에서 받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충격, 바뀐 환경탓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고, 나역시 혼자만의 주관적인 과민증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묻어버릴 수 없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약물수사의 문제는 이미 하영옥씨가 약물투여가 78일이나 경과된시점에서도 의사와 전문가의 진찰과 상담으로 약물수사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을 밝히는 소견서를 확보했으며, 신체감정관련진술서등 자세한 내용을 통해 나타난 증상이 남편의 증상과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민혁당 관련 가족대책위의 가족분들은 지난 3년간 하나같이 약물수사의혹을 물증을 확보해 국정원의 인권유린 만행을 단죄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도청과 미행, 프락치활동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 가혹행위등의 비열한 방법으로 갖은 음모를 꾸며낸 것이 바로 국정원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보다 손쉽게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조작음모를 펴낼 수 있게 해준 것이 약물 수사인 것입니다.

본인은 인간을 실험용 생쥐나 일제시대 생체실험대상인 마루타 정도로 여기는 그들의 비인간적인 작태에 우선 솟구치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하영옥씨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약물수사인 것을 확신하면서 이후에 계속될 그들의 비인간적인 인권유린을 막아보고자 노력한 것을 보면서 남편 임태열씨의 경우도 약물수사에 대한 물증을 잡아 재판을 원천무효화하는 투쟁이 실제 가능한지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결코 공안기관의 작태를 그냥 보아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약물수사의혹을 처음부터 끈질기게 제기하는 이유는 본인이 가진 약물수사의혹에 관한 모든 부분을 공개하고, 지금으로서는 의혹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 국내에서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 수천가지의 약물이 존재하기에 머리카락과 혈액등에서 검출되더라도 어느약물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 - 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후 제2 제3의 피해자를 계속 가져올 비인간적인 약물수사와, 그것을 동원한 수구보수세력의 앞잡이 국정원을 반드시 단죄하는 날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한다는 가족대책위 분들과 본인의 책임감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후 하영옥씨의 약물수사의혹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서와 신체감정관련 진술서등을 공개할 것이며, 본인의 남편 임태열씨와 똑같은 약물수사를 받은 하영옥씨의 경우를 참고하시어 이후 국정원의 비인간적 약물수사만행을 단죄할 수 있는데 뜻있는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2001년 3월 16일

소위민혁당 사건관련 임태열씨의 처 박윤희

• 이 글은 지난 3월 6일 소위 '민혁당' 사건으로 연행된 임태열(서울대 85학번)씨의 처 박윤희씨가 소위 '민혁당' 사건대책위 홈페이지 소식란에 올린 글을 퍼온 것입니다.

정기구독을 바랍니다

월간 '민족21' 창간!!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통일잡지 '월간 민족21' 이 창간되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귀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 우리 후원회원과 만나고 싶은 송환장기수선생님들과의 정이 오고 갈 것입니다.
후원회원들의 정기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신청: 이창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수습간사
019-205-7937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를 통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일정한 금액이 양심수후원회의 기금으로 쓰입니다. 적극적인 정기구독을 바랍니다.

각 소모임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 소식지 편집팀이 소식지 내용을 다채롭게 하기위해 '**편집위원 늘리기운동**' 을 벌리고 있습니다.
향후 편집팀을 글쓰기 모임처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쓰기에 관심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연락: 이승미 016-395-0725)

● **산행모임 회원**을 모집합니다.
산행모임은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야간산행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매달 셋째주 일요일에 있는 양심수후원회 정기산행을 합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회원들의 가입을 열망합니다.
(연락 : 이정태 017-281-5500)

● **시사모임**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사모임은 앞으로 매달 있을 회원교육사업인 시사강좌를 준비하고, 자기 스스로 민주, 통일 등 다양한 시사주제에 대해 세미나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시사문제에 호기심이 많은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 송창학 016-235-3726)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1년 3월

01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3대개혁입법 관철을 위한 공동대책위 주최로 '개혁실종 규탄 3.1 시국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노동자, 청년학생 등 2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림. 집회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성당 들머리에서 정리집회.

02 이창희, 송창학 회원 등 명동성당 농성단에 하루 합류.

03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진수, 하영옥씨 면회, 김영승, 김영식, 송계채, 이성근 선생님, 이정태 회원과 함께 함. 민가협 어머니들과 후원회원들게 감사인사 전해달라 함.

대전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대전민가협 총회 및 창립15주년 기념, 홍성순 대전 민가협회장 유임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14차 명동성당앞 토요캠페인을 진행.한희숙, 이창희, 조경래, 양계숙, 한수정, 곽인석 회원 등 함께 함.

04 명동성당측 정치수배 농성단 모형감옥 철거 요청, 권오헌 대책위 대표가 부주임신부에 전화로 부당성 지적, 6시 정리집회 끝나고 성당측 요구에 대한 대책논의

05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올바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민간모임 주최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과 한·미 회담에 즈음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 기자회견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국민대토론회'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다.

민주화운동정신 계승국민연대(상임공동대표-권오헌, 남상현, 단병호, 박정기, 오종렬) 명예회복위원회 3차 회의를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갖고 명예회복 보상법 등 개정문제 등 협의

김교영 선생님 사모님이신 이해욱님께서 부정맥, 협신증, 당뇨, 혈압 등으로 어렵게 지내오시다가 지난 2월 23일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하여 부정맥 증상에 대한 수술(2.28)을 받으시고 3월 5일 퇴원하여 지금은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쾌유를 빕니다.

06 명동성당측의 정치수배농성단 모형감옥 철거에 대해 성당들머리에서 민가협, 범민련, 전국연합, 구로청년회, 고대생 등 50여명 모여 규탄집회.

감옥에 있는 양심수에게 영치금 발송(92통)

07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정치수배해제 농성단과 대책위원회, 사회단체 연명으로 명동성당측의 모형감옥 철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종린, 이천재, 김선분, 권오헌 대표가 새로 부임한 부주임 신부와 만나 항의하고 원상회복 촉구

0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생활지원금 대책위원회 1차 모임, 심의위원회에서 열림, 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행정자치부 차관보 조영책, 기획예산처 예산총괄 심의관 임상규, 법무부 송무과장 김학근, 국가보훈처 기획관리관 김영욱, 민가협 공동의장 권오헌, 참여연대 연구위원 정해구(성공회대), 계승연대 이선희 변호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정하중(서강대)이 참석하여 재원조달방법, 지급방법,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등 토론

민가협 368회 목요집회, 여는말: 임기란 상임의장, 김수환추기경에게 보내는 편지낭송: 최원석 어머니, IS구속자 사례: 김광일학생 어머님, 김영재씨 형님, 성균관대 노래패 '아우성' 공연 등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다 사망한 최종길 당시 서울대 교수의 동생 최종선씨, 형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타살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기를 펴냄

09 '김정일의 통일전략'을 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 재판에 증인으로 왔다가 국정원에 의해 체포된 송학삼씨 구속과 관련 '국정원의 송학삼 구속 규탄집회'가 국정원 앞에서 송영현 무죄석방대책위 주관으로 열림. 노수희, 권오헌 등 규탄연설, 김승교 변호사 경과보고 등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미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 명예회복과 보상 받게 함.

10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15차 명동성당앞 토요캠페인 진행. 한희숙, 조경래, 이창희, 이승미, 이혜정, 이상희, 신현익, 송창학, 주경임, 이정태 회원 등 함께 함.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이신 권오헌 선생님께 64회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옴시롱감시롱 회원들이 주도하여 생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1 '이문학회'를 이끄시며 많은 후학들에게 고전과 한문을 강의하시는 이구영 선생님의 아드님인 이봉훈님이 주진옥님을 맞아 양가 부모님들과 친지들의 축복속에 잠실 향군회관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2 민가협 16차 총회준비위원회 첫 모임, 총준위장: 임기란, 의제채택: 민가협 전체평가

13 명동성당 감옥농성 참가.

14 ㈜ 구속학생학부모회 총회가 민가협 사무실에서 열림. 2001년 구학협을 이끌 회장엔 임기란 회장님이 유임되었고 부회장엔 박영옥(심재춘 어머니), 조순덕(위영석 어머니), 박미준(권순욱 어머니), 방영숙(최원석 어머니), 임미자(김호 어머니), 권성자(하영옥 어머니), 윤달임(장창준 어머니) 어머님들이 선출되었으며 후원회장엔 안금덕(조형곤 어머니)어머님, 감사에는 김정숙(임종석어머니, 김순심(김덕영 어머니)어머님이 선출됨

㈜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전농 등 민중진영 35개 단체는 '민족자주 · 민주주의 ·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준비위원회를 결성. 단병호, 권영길, 정광훈, 오종렬, 홍근수, 최갑수씨 등을 공동대표로 선임

㈜ 종로구 조계사에서 '새만금 깃벌 생명평화연대 준비위' 주최로 '새만금 갯벌 생명살리기 범종교인 기도회' 열림

㈜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신대문제 대책위 회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역사교과 서 개악시도규탄집회를 열고 시위

㈜ 소식지 발송작업(국내1008통, 국제 17통), 송창학, 양계숙, 변의숙, 정창영, 한수정, 조경래, 이창희 회원 등 함께 함.

15 ㈜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홍익대 장진숙 학생의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기독교 연합회관 대강당에서 범민련, 전국연합,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가협, 민화협 등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결성식을 갖고 북측에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대토론회' 공동개최 제안

㈜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민요창극 "진도에 또 하나 진도가 있었네" 국립국악원 개원 50주년 기념공연. 김혜순 회원 어머님 출연. '옴시롱 감시롱' 회원들과 안학섭, 김해섭, 김수룡 선생님과 함께 관람

㈜ 민가협 369회 목요집회. 여는 말: 임기란 상임의장님, 두혜전, 이장하 학생 구속사례발표, 대우자동차 구속자가족들 이야기: 대우차 노조대의원 채희치씨 부인 박현숙님 등

㈜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제주 4.3항쟁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를 대학 안에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송익근 전 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상고심에서 '역사적 진실 재규명 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16 ㈜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 수감되었다 풀려난 이 아무개(34)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이씨가 사상전향거부,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냄

17 ㈜ 대방동 '장애인의 꿈을 넘어' 사무실에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제3차 상임대표 및 집행위원장단 연석회의' 를 갖고 기념사업회 공청회, 민주유공자법안, 의보사 제보자찾기 문화제, 명예회복법 개정,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파즐 란데라 초청행사 문제 등 협의

㈜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명동성당농성단, 양심수후원회 토요집회 - 명동들머리에서 열림. 이 집회에는 제주에서 올라오신 고성화 선생님도 함께 함. 민혁당 사건 관련하여 구속된 임태열씨 어머님 사례발표-곽인석, 송지영, 이승미, 김민정, 이창희, 송창학, 주경임, 이득행, 양계숙, 남보현, 심주이, 안은현, 한수정 회원등 참가.

㈜ 소식지 편집회의 진행, 이승미, 곽인석, 남보현, 이창희 회원 등 참가.

18 ㈜ 양심수후원회 3월산행, 연신내역→불광사, 진관사 능선→연신내 역으로 하산. 권주환선생님과 권오헌 회장, 이득행, 양계숙, 이창희, 이승미, 변의숙, 송창학, 주경임, 송인석, 송인영, 김창희, 김강석, 신현익, 심주이, 남보현 회원 등 참가

19 ㈜ 민가협 16차 총회준비위 두 번째 모임 - 구학협 평가

㈜ 1978년 동일방직 노조원에 똥물투척 등 탄압은 당시 중앙정보부 2국(보안정보국) 경제과가 개입되었었다고 의문사한 서울대 교수 동생이며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던 최종선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증언

20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공식 인정

21 ㈜ 안국동 길상사 포교원 인권법당에서 대한 불교조계종 길상사 포교원 · 불교인권위원회이전 법회가 열렸음. 양심수후원회 감사이기도 한 진관스님이 주지스님으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를 하고 있으며 새로 2층집을 구해 인권법당역을

2001년 3월

할 것이라고 함. 축하합니다.

- 서울역에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주최로 '의문사진상규명과 제보자, 양심선언자 찾기 캠페인 선포식' 이 있었고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들어감. 이 캠페인은 4월 30일가지 이어짐.
- 낙성대 '만남의 집' 에서 서옥렬, 김영식 선생님과 만남의 집 운영관리에 대해 의견을 나눔.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언론노조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250여명이 보수야당의한겨레 신문 음해 및 족벌언론 비호 규탄집회

22 민가협 370회 목요집회, 여는말: 임기란 상임의장,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측 증인인 송학삼씨 증언차 귀국, 법정증언 뒤 국정원에 의해 구속된 부당행위 경과: 김승교 변호사, 서울대 법학연구회 학생 법정증인 체포풍자 퍼포먼스, 장진숙 홍익대생 석방인사.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소모임 발전을 위해 회원들이 모임을 가짐. 송창학, 이득행, 이승미, 양계숙, 노혁, 한수정, 이창희 회원 등이 함께 함.
- 말지 양심수 4명에게 발송

23 양심수후원회 제13차 총회준비위 제1차 모임이 낙성대 '만남의 집' 에서 있었음. 총준위원장으로 박용길 장로님을 호선하고 의안(12차년도 사업평가안, 재정보고, 13차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모범회원선정안, 임원선출안, 회칙검토안, 총회보고서 제작안, 총회준비 점검)을 이의없이 채택하고 12차년도 사업평가와 13차년도 사업계획안을 검토. 다음 회의때 확정키로 함, 총회날짜, 4월 21일 오후 3시 30분 홍사단 대강당으로 결정.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계신 정순덕 선생님 문병감. 김현애, 황은경, 곽인석, 정창영, 이창희 회원 등이 함께 함.

24 인천지역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장기수 정순덕 후원회 준비위원회' 는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나사렛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정순덕 선생님을 모시고 '정순덕 선생 삶을 찾아' 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걸어오신 이야기를 들으며 문화행사를 가졌다고 함. 이 자리에는 정형서 후원회 준비위원장을 비롯하여 준비위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 대표가 함께 하여 정선생님을 송환을 촉구하기로 함

-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제5차 문화제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사회단체와 청년학생 등 3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림. 구속양심수 임태열, 강태구씨 가족의 사례와 조국과 청춘, 구로청년노래패, 노래패 등의 공연이 있었으며 범민련 김규철 선생의 정치연설, 농성단장 진재영씨의 농성단주장이 있었음. 이창희, 송창학, 주경임, 송인석, 송인영, 이승미, 남보현, 곽인석, 변의숙, 정형근, 신현익, 양계숙, 이득행 회원 등이 함께함.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활동에 언제나 적극적인 송창학, 주경림 부부회원이 일주일간격으로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5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제6기 중앙위원회 총회가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림. 총회에서는 남측본부 이종린 의장을 재신임하고 도광호 선생 등을 감사로 선출.

26 서울지법 8단독(배준현 판사)은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심리

27 박정희 기념관 건립반대 서울시청 정문앞 1인시위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 참여

28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초청으로 서울에 온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파즐 란데라 위원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실규명과 과거청산은 궁극적으로 화해를 위한 것' 이라며 '용서의 믿음이 없다면 대립·반목을 키울 뿐' 이라고 발언.

29 민가협 371회 목요집회, 여는말: 임기란 상임의장 등

-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주최 '2차 정상회담의 의제와 전망' 주제의 토론회가 서울시 별관 2층 강당에서 있었음
-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와 인혁당 대책위 등 공동주최로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파즐 란데라 위원 초청강연회 및 토론회를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에서 개최

30 민가협 제16차 총회준비위원회 3차 모임, 양심수후원회 사업평가와 총회진행 순서 및 담당자 결정 등

-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참여연대, 기자협회, 민가협 등 1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 국민행동' 이 서울 언론회관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언론개혁 촉구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총회준비를 위한 회원모임을 갖음, 이승미, 양계숙, 노혁, 이득행, 한수정 회원 등 참가.

31 -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종묘공원에서 '경제침략 · 평화위협 미국반대,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정권 퇴진 전국민중대회'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등 8000여명이 모여 열림. 대회를 마친 다음 종로로 행진하여 종각4거리에서 미대사관 진격투쟁을 하다 경찰제지로 몸싸움.
- 토요캠페인은 민중대회관계로 약식 선전전으로 진행함.
- 출소장기수선생님과 양심수가족에게 후원금을 드림.

회원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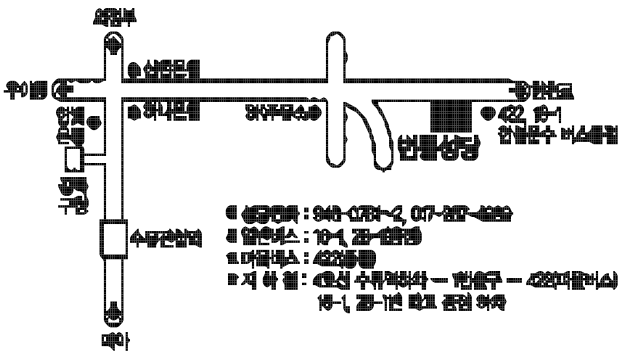
- 김영주 회원님께서 신랑 최종혁님을 맞아 4.15일 오후1시 드림랜드 문화회관 2층 루비홀에서 부모님과 친지 축하손님들 축복속에 화촉을 밝히십니다. 축하드립니다.

- 정창영 회원님께서 신부 윤숙님을 맞아 4월8일 대구 늘봄예식장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옴시롱 · 감시롱회원 12명이 함께 하며 축복을 전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 우리탕제원에 계신 안학섭선생님께서 72회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옴시롱 · 감시롱 회원들과 정창영 회원 결혼식에 함께 가셨고, 바로 대구에서 옴시롱 · 감시롱회원들이 소박한 선물과 생신축하를 해드립니다.

- 항상 후원회활동에 열심이었고, 그를 통해 영원한 인연을 맺은 양계숙 · 이득행 회원이 드디어 화촉을 밝힙니다. 축하드립니다.

- 때 : 2001년 5월 12일(토) 오후2시
- 곳 : 천주교 번동 성당
- 찾아오시는 길



4월 산행

진달래 붉게 핀 4월,
우리는 자연의 봄햇살을 맞으며
역사의 봄빛을 맞기위해
푸른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고자 합니다.

언 제 : 4월 22일 오전 10시

어디서 : 북한산 우이동 그린파그앞

준비물 : 도시락 지참, 회비 3000원 등

오는 편 : 8번, 28번, 28-1번 버스 등